

공간이야기도

www.ngii.go.kr / 2020. 1. 14 / No.06

winter

포커스

‘국토정보플랫폼’
데이터 공유·개방,
소통·협력의 정부 3.0 실현

우리들 이야기

날마다 새롭게
성장을 실현하는 사람들

이번 호에서는 2020년 새롭게 탈바꿈하는 국토정보플랫폼의 소식을 담고,
국토위성센터 개소식과 창립 45주년 행사 소식을 실었습니다.
한편, 도전 정신으로 성장을 꾀하는 국토조사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HAPPY
NEW YEAR



책임운영기관
국토지리정보원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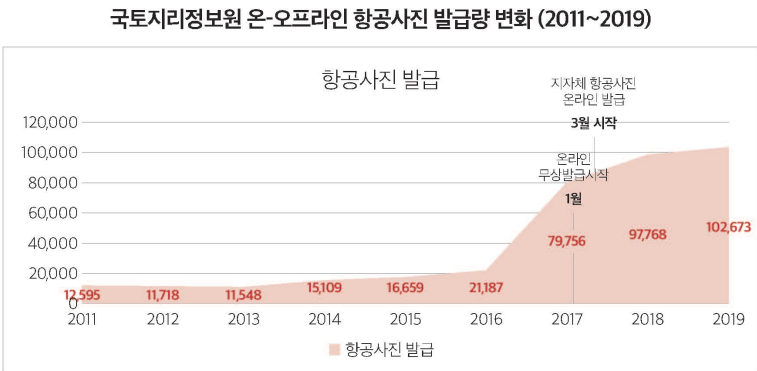
글: 국토조사와 홍승렬 주무관

‘국토정보플랫폼’ 데이터 공유·개방, 소통·협력의 정부 3.0 실현

국토지리정보원 성과물 발급 위주였던 국토정보플랫폼이 안팎으로 변신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은 지금, 산업 분야의 니즈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정보플랫폼의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정보플랫폼은 공공분야 행정망에 Open-API 연계 확대를 통해 최신공간정보의 행정 활용을 지원하고, 전국 항공사진을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거버넌스를 실천하고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촬영한 항공사진은 도시계획, 세무체납,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비롯해 도시개발과 관련한 토지보상, 행정 기초자료, 소송의 증빙자료 등 소유권에 대한 실질적 증빙자료로 사용된다.

지자체 공간정보 활용을 통한 항공사진 발급 통합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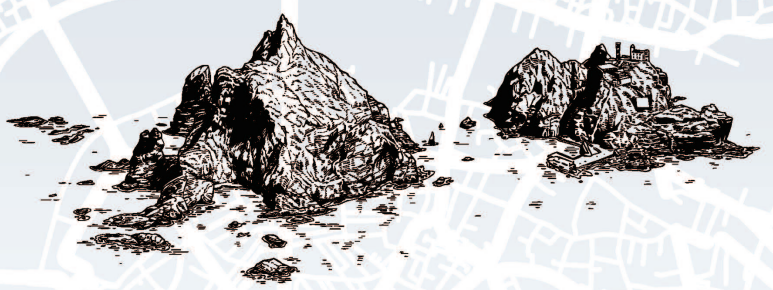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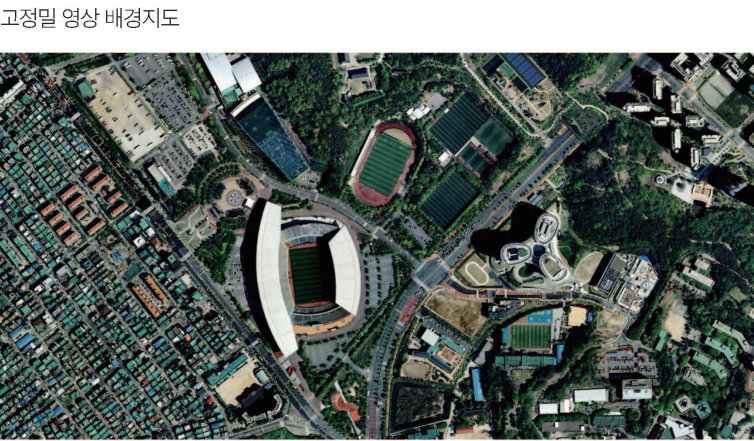
2017년부터 지자체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결과, 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제주도특별자치도·성남시·김해시·청주시 등 8개 지자체의 속성정보와 표준포맷 변환 구축과 보안시설 유출방지가 된 최신 항공사진이 국토정보플랫폼에 포함됐다. 2019년 현재, 국토정보플랫폼의 항공사진 보유매수는 약 80만 매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약 100만 매의 항공사진을 온·오프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공간정보 Open-API를 이용하여 10만 명이 최신 공간정보 활용 예정

지난 3월 공공·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한 국토정보플랫폼 수요조사 결과 10만여 명이 사용 중인 34개 기관 43종 시스템에서 API 사용요청이 접수됐다. 국가행정망을 사용하는 기관은 국토정보플랫폼의 API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의 최신 공간정보(25cm급 항공영상, 연단위)를 갱신해 활용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 등 실시간 행정처리되는 정보도 수시 업데이트를 통해 지도에 반영하는 중이니 최신 공간정보를 행정에 활용할 수 있다. 현재 행정망 Open-API의 기관별 인증키 발급이 완료된 상태로 정부와 지자체

의 2·3차 소속기관까지 확대될 경우 비용 절감의 파급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동일한 내용의 최신 공간정보를 한 곳에서 생산·관리하므로 기관별 관리 부담도 줄어든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명표기 오류 발견을 계기로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한다면 행정기관 어디나 최소한의 전산기능만으로도 공신력 있는 공간기반 행정업무가 가능함을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부족한 부분은 수요자 커뮤니티를 통해 사용자 의견이 반영되는 스마트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잘못된 동해·독도 지명표기 개선

얼마 전 공공기관의 길 안내 지도에서 다케시마, 일본해로 표기된 것이 발견되었다.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도를 전수조사한 후, 정확한 지명표기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국토정보플랫폼의 Open-API 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왔다. 그 결과 공공분야의 지도는 전부 개선되었고 기업 홈페이지도 조정 중에 있다.

2020년, 클라우드 기반 국토정보플랫폼 구축의 원년

국토지리정보원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편리한 스마트 국토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20년부터 '사용자가 편리한 공간정보 구축'을 위한 고도화 과제인 클라우드 기반의 국토정보플랫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최신기술과 인프라를 도입하고, 공간정보 관계기관 총합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국토정보플랫폼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공간정보 구축의 네 가지 실행과제를 소개한다.

소통형 플랫폼으로 변신

수요자 참여를 꾀하는 개방·소통형 서비스와 편리한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제작한 주제도의 자생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간정보 성과물 활용 환경 개선

공간정보의 벡터, 래스터 데이터 조회·변환을 위한 범용 공간정보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무상공급하고, 사용자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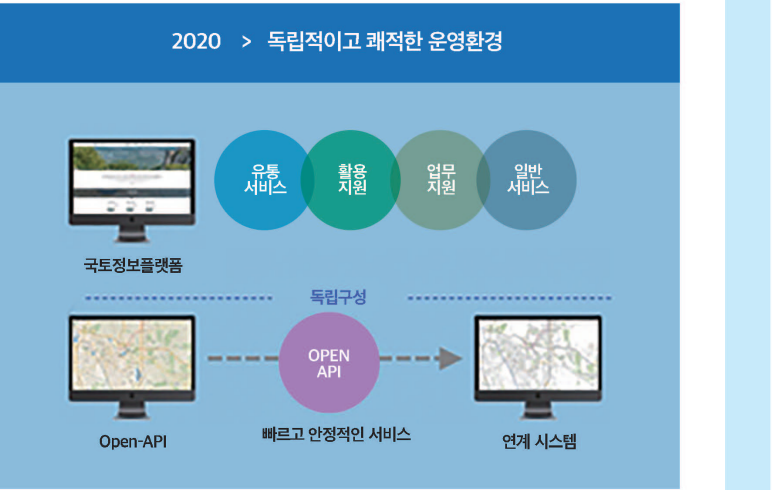
지자체가 촬영한 항공사진 통합 발급

인천·광주·대전광역시, 경기·제주도, 성남·김해·청주시 그리고 서울특별시(2020년 7월)의 항공사진을 한 곳에서 발급할 수 있다. 항공사진 공동 활용의 만족도가 높아 지자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간정보 인프라 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쾌적한 환경 제공

적극적인 공간정보 인프라 역할 강화를 통해 국토지리정보원 추진 정책과 주요 현안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글.
이종철

사진.
한상훈, 전예영



“우리 곁에 친근한 존재가 되어
늘 같이 하겠습니다”



지명관리과는 말 그대로 지명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할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것이 지명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친숙한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명에 대한 법·규정과 정책, 지명정보와 국가지도집 발간을 비롯해 지명 관련 민원업무도 맡고 있고, 국제협력 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띠별 지명 이야기’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데, 이주 인기가 좋아 언론시마다 인용한답니다. 우리 곁에 친숙한 지명처럼, 항상 여러분 곁에 같이 하겠습니다.



지명관리담당

“내실 있는 조직,
전문성이라면 남부럽지 않아요”



저희는 지도공급을 중심으로 지도간행상사, 종이지도 및 수치지도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지도 공급의 민원도 저희가 처리하고 있죠. 직원은 세 명이지만 오랜 기간 업무에 몰입하며 지도와 관련된 일이라면 누구보다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나가는 지도는 모두 저희 손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작은 조직이지만 전문성과 내실을 갖추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마다 성격은 진중하고 조용하지만, 누구보다 조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유통공급담당

날마다 새롭게 성장을 실현하는 사람들

국토조사와 부서 탐방

‘일취월장(日就月將)’은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의미다. 국토조사와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 속의 액자에 이 말을 새겨넣고 업무에 최선을 다한다. 열세 명이란 인원은 언뜻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치밀한 조직력과 각자 전문가라는 자부심으로 어려운 난제도 거뜬히 해결해 나간다. 그래서 국토조사와 사람들은 단단한 내실과 자율적인 질서를 통해 조직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가고 있다고 자부한다. 국토조사와는 국토조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국토통계지도의 구축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치지형도와 정사영상 등 공간정보 데이터를 대내외 필요처에 제공하고, 지명과 관련한 다양한 업무도 맡는다. 저마다 각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기에 효율성이 높다. 한편으로 직원들은 조사 계획담당, 지명관리담당, 유통공급담당 등 각 계의 업무 동향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라 상호 협력에서도 참여도가 높다고 말한다. 모두가 국토조사와라는 한 울타리에 있는 만큼 아낌없이 힘을 모은다는 생각이다. 조직을 더욱 성장시키고자 노력하는 마음, 서로를 신뢰하며 의지하고 따르는 직원들이 있기에 이들이 만들어가는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2019년의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은 12월의 어느 날, 온화한 얼굴로 반기는 열세 명의 미소를 만났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는 우리,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저희는 국토조사에 관한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활용도움터의 관리와 국토정보플랫폼 구축·운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 국토조사와 관련된 지자체나 유관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지자체별 지리지를 제작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드는 업무라는 자부심으로 전문성 확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이지만 서로서로 뜻이 맞는 직원들과 함께 하고 있기에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사계획담당

mini INTERVIEW

국토조사와 안재각 과장

국토조사와는 어떤 일을 하는지?

국토지리정보원이 생산하는 모든 공간정보를 국토정보플랫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지명 관련 업무를 비롯해 국가지도집과 지리지를 발간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UN지명전문가회의에 기관 대표로 참여하여 동해·독도의 올바른 지명을 국제사회에 정착시키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조사와의 면면을 소개하면?

국토조사 업무가 첨단 IT 기술과 관련성이 높아 직원들이 최신 IT 기술이나 트렌드에 대한 조예가 깊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리학이라는 전통의 학문 지식도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첨단과 전통이라는 각기 개성 다른 분야가 상존하지만 서로 조화롭게 운용된다는 면에서 복 많은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와 과거, 그 사이에 현재가 어우러진 행복한 조직입니다.

국토조사와의 2020년 계획은?

우선, 중장기 계획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토조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정착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본식 지명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신속히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토지리정보원은 남·북미 20여 개 국가가 참여하는 미주지리학회 상임이사국에 가입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지명과 지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와 업무가 대외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엔 홍보에도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더 깊은 소통과 화합을 향해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45주년 기념행사

국토지리정보원이 창립 45주년을 맞았다. 각계각층의 축하 물질 속에 기념행사는 1부 창립기념식과 2부 국토위성센터 개소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통과 화합의 장을 넓히고 국민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선다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각오가 스며들었다.

국토지리정보원, 마흔다섯 번째 생일 맞아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 11월 1일 지도박물관 2층 대강당에서 창립 45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 손우준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을 비롯해 주요 내외빈과 직원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식이 시작됐다.

기념사에 앞서 국토지리정보원 주관 '제14회 전국 어린이 지도그리기 대회' 및 '삼각점 사진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과 국토지리정보원의 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한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공로상 수여식이 이어졌다. 국토지리정보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사공호상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의 목표는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국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국토위성정보 활용시대를 여는 국토위성센터

이어 지난 10월 준공한 국토위성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 차세대 중형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국토위성센터는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국토위성센터를 중심으로 활용 부처 중심의 위성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사공호상 원장은 기념사에서 "국토위성센터 개소로 실시간 위성영상 등 즉각적으로 필요한 영상 제공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 드론과 풍선 등을 활용한 축하 퍼포먼스가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드론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편리한 스마트 국토 실현이라는 의지와 소망을 담아 하늘을 날았다.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테이프 커팅과 함께 국토위성센터 개소를 알리는 합성을 쏟아냈다.

국토지리정보원 창립 45주년 오전 기념행사가 끝난 오후, '우리는 하나 워크숍'이 진행됐다. 함께 웃고 뛰고 즐기는 동안, 승부욕은 뜨겁게 타올랐고 공유와 소통은 더 큰 하나를 향해 나아가는 국토지리정보원을 만들었다. 워크숍의 첫 행

사로 '퀴즈 열전'이 시작되자, 각 과로 나누어 앉은 구성원들 사이로 퀴즈왕이 되기 위한 눈치전이 오갔다. 확신이 들지 않는 문제는 서로 분산해 단 1점이라도 획득하려는 머리싸움이 치열했다. 저마다 찰떡 호흡으로 손발을 맞춰 착실히 점수를 쌓아간 끝에 2019년 퀴즈왕은 '공간영상과'가 차지했다.

즐거운 승부, 하나 되는 체육대회

퀴즈왕 선발 후 한마음 체육대회가 야외 테니스장에서 펼쳐졌다. 대회는 공유(운영지원과, 국토조사과, 지리정보과)와 소통(국토측량과, 공간영상과, 기획정책과, 국토위성센터) 두 팀으로 나누어 펼쳐졌다.

먼저 족구 종목의 명승부가 펼쳐졌다. 피구와 결합한 형태의 '여왕 족구'는 여성 참가자가 반드시 시합에 나서야 했다. 그래서인지 여느 족구 경기에서는 들을 수 없는 "잡아! 잡아!"라는 외침이 여기저기서 울려 퍼졌다. 토너먼트 형식으로 승자를 가린 끝에, 소통 팀의 기획정책과와 공유 팀의 국토조사과가 결승전에 올랐다. 한 치의 양보도 허용치 않는 매서운 발차기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결승 전단은 난타전 끝에, 승리의 여신은 공유 팀의 '국토조사과'에 미소 지었다.

공유 팀 점수가 소통 팀을 앞서는 가운데 양궁, 농구, 축구 경기가 차례대로 진행됐다.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한 사람은 노하우를 전수하며 개인 코치를 자처했다. 어느덧 마지막 경기의 단체 줄넘기 횟수를 세는 목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호흡과 화합이 관건인 종목에서 무려 40개라는 세기의 기록을 달성한 팀이 있었으니 바로 '국토측량과'였다. 강인한 체력을 동반한 팀원들의 호흡은 다른과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최종 점수 합산 결과, 공유 팀 1,100점 vs 소통 팀 1,240점으로 소통 팀이 승리했다. 물론 승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축제는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법이니 말이다.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마음을 담은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된 축제의 현장.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소통하고 공유했던 즐거운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됐다.



한·러 공간정보 및 지도제작 분야 기술협력회의

지난 10월 30일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한·러 공간정보 및 지도제작 분야 기술협력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은 3D 공간정보구축 현황을 비롯한 원스톱 공간정보 서비스 현황, 국토위성센터 구축 및 관측 위성 제작 현황을 소개했다. 러시아 측은 국가등록지도제작청의 러시아 원격탐사 현황 및 지구관측 시스템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위성데이터 처리 자동화기술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콘스탄틴 리트빈체프 정책보좌관은 "한·러 교류가 전 세계의 공간정보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차기 회의는 러시아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 일 시 2019. 10. 30.(수)
- 장 소 서울 엠버서더호텔
- 참석자 [한국]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임현량 과장 등 5명
[러시아] 국가등록지도제작청 정책보좌관 등 4명

제50차 오스트리아 지명 국제 심포지엄 (GeoNames19 Symposium) 참석

국토지리정보원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측량조사국이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국토지리정보원은 한국 주요지명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지명과 인구이동(Place Names and Migration)을 주제로 한 지명 학술토론회에 참가하는 한편, 제146차 독일어권 지명위원회 회의 및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AKO), 유엔지명전문가그룹(UNGEGN) 워킹 활동을 펼치고 유럽 지역 지명위원회의 활동 현황을 조사하며 국내 지명위원회와의 교류 가능성을 검토했다. 더불어 국토지리정보원이 출판한 지명목록집과 「한국의 지명」 영문판을 전시하고 배부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오스트리아 지명위원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가지명위원회를 대표해 감사패와 대응여지도를 전달하며 두 나라 간 미래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했다.



- 일 시 2019. 11. 6.(수) ~ 11. 8.(화)
- 장 소 오스트리아 비엔나 측량조사국
- 참석자 [한국]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 강기희 주무관 등 2명
[오스트리아] Peter JORDAN, UNGEGN 전문가 외 유럽 및 북미 지명전문가 약 8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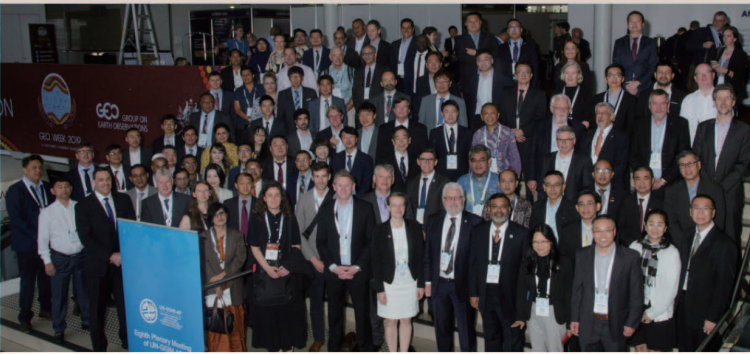
글로벌 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국토지리정보원의 활동을 소개합니다.

제8차 UN-GGIM-AP 총회 및 GEO 2019 참석

지난 11월 1일 호주 캔버라에서 제8차 UN-GGIM-AP 총회와 GEO2019가 개최됐다. UN-GGIM-AP 총회의 집행이사국으로서 한국을 대표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의사결정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아태지역 측지기준 워킹그룹 활동을 펼쳤다. 또한 GEO2019 총회에 참가하여 한국의 국토관측 위성 발사 및 활용방안에 대한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총회는 '측지 역량 강화'를 주제로 포럼을 실시했으며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김형수 사무관 등은 K-GEO를 구성하여 2021년부터 추진 예정인 측지분야 글로벌 연수과정을 소개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높이 기준 체계 공동 프로젝트 발굴 의제에 대한 향후 활동 방안의 논의를 주도했다.

GEO 2019 총회에서는 3대 글로벌 아젠다 이행에 대한 협력방안이 논의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제작 및 토지이용 모니터링 등에 활용하기 위해 발사 운용 예정인 국토위성센터를 홍보했다.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참여국의 위성영상을 이용한 전 지구적 활용 방안 사례를 습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 일 시 2019. 11. 1.(금)
- 장 소 호주 캔버라 National Convention Centre Canberra
- 참석자 국토지리정보원 김형수 사무관 등 3명

국토위성센터, 제10차 환경위성국제워크숍(GEMS) 참석

국토위성센터는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탑재체의 산출물 기술논의를 위해 제10차 환경위성국제워크숍(GEMS)에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나사 지구과학국, 하버드 스미소니언 연구소, 유럽 기상위성 개발기구, 유럽우주국, 나사 랭글리 연구소, 연세대학교 등 세계의 위성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정지궤도 대기오염 물질 관측위성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환경 관측 자료를 생산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논의했다. 또한 위성관측 자료의 처리와 분야별 융복합 방안 및 기상탑재체 활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더불어 정지궤도 환경위성 보유국으로서 전 지구적 환경감시의 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할 것을 합의했다.



- 일 시 2019. 11. 19.(화)
- 장 소 서울가든호텔
- 참석자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 오홍종 연구사
국내외 환경위성 전문가 및 관계자 100명

사공호상 원장, 적극적인 대내외 소통 시작



사공호상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지난 10월 8일 KTV 생방송 인터뷰를 시작으로 BBS 라디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신임 원장으로서 경영철학과 기관 운영방향, 주요 추진사업 등을 적극 소개하였다. 사공호상 원장의 소통 행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물론, 국토지리정보원의 역할과 방향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중장기('19~'22년)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20년 예산 확정

국토지리정보원이 새로운 기관 비전과 사업운영체계를 설정하였다. 사공호상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편리한 스마트 국토 실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목표, 16개 전략과제, 51개 실행과제를 확정하였다. 더불어 이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20년 예산 1,007억 원을 편성하였다.

국토지리정보원 사업운영체계

비전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편리한 스마트 국토 실현

목표

정확한 국토위치 기준체계 확립

사용자가 편리한 공간정보 구축

미래를 견인하는 공간정보 인프라 조성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경쟁력 강화

목표 1

전략과제

위성측위(GNSS) 서비스 확대 등 4개

실행과제

위성기준점 설치 및 고도화 등 10개

목표 2

전략과제

국가기분정보 생산체계 혁신 등 4개

실행과제

국가기분도 생산체계 혁신 등 16개

목표 3

전략과제

디지털 트윈 구축 기반 마련 등 4개

실행과제

3차원 공간정보 및 실내공간정보 구축 등 10개

목표 4

전략과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기관 역량 강화 등 4개

실행과제

GNSS 기반의 지각변동 감시체계 구축 등 15개

국토지리정보원 2020년 예산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20년 예산
국토지형관리	90,4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분도 제작 국가기준점 관리 국토조사 및 지명 유엔 아프리카 구축(ODA) 국토지형관리(정보화) 	66,984 16,063 2,806 2,800 1,766
인건비	8,956
기본경비	1,358
합 계	100,733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 2년 연속 본선 진출



국토지리정보원은 11월 12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개최한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 본선에 진출하였다. 이번 대회는 전체 52개 책임운영기관에서 출품한 105개 우수성과 중 본선 진출 12개의 성과를 소개하고 각 기관의 그간 노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지도 서비스 혁신' 추진 성과를 소개하여 청중들로부터

생활 속에서 지도와 공간정보의 편리성·중요성에 대한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번 성과는 '18년에 이어 2년 연속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였다.

국토연구원과 정책연구 공유 간담회 개최



지난 11월 20일 국토지리정보원과 국토연구원은 정책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기 위한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공공-민간 간의 협업확대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두 기관은 정책과 연구의 상호보완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GITC) 행사 지원



국토지리정보원은 부산 부경대에서 개최한 '2019 글로벌 장애 청소년 IT 챌린지(2019 GITC, 11월 26일~28일)'에서 해외 20여 개국에서 참여한 장애학생들에게 행사장 안내용 점자지도와 점자 세계지도를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행사 참여를 지원하였고, 동해·독도의 올바른 지명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

해외 진출 희망기업의 ODA 계획수립을 위한 SDI 진단틀 시연



국토지리정보원은 11월 28일 공간정보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측량 및 지도제작 분야 해외진출 지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UN-GGIM활동을 하며 알게 된 공간정보 구축 대상국들의 글로벌 표준에 대한 요구수준을 기업에 전달하고 해외 진출활동에 도움이 되는 SDI 진단서 개발틀을 시연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검색제한 항공사진 온라인 서비스, 2020년 1월 개시



2020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발급 제한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던 공개제한 항공사진 발급이 온라인으로 완전 전환된다. 향후 전국 각지의 검색제한 지역 내 소유권 분쟁 등의 민원해결을 위해 방문 필요없이 온라인 발급만으로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알립니다
결혼
오민호 (국토위성센터)



승진
운영지원과 권정심 (행정7급 → 행정6급)
국토측량과 이지훈 (시설7급 → 시설6급)
운영지원과 정민숙 (행정8급 → 행정7급)
운영지원과 변희섭 (행정9급 → 행정8급)



과장 보임
기술서기관 김건수(공간영상과장)



이탈



이탈



이탈